

우리 나라 'GDP 1조원 도시' 27개... 1위는?



강소성 남동시에 위치한 한 해양 장비 회사의 도크

최근 공개된 2024년 '경제성적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생산총액(GDP)이 1조원을 넘은 도시가 총 27개에 달했다. 'GDP 1조원 도시'는 지역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 성장 거점으로 기존 산업 발전을 공고히 하는 한편 혁신 인도를 계속 강화하여 도시의 혁신 능력과 핵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2024년 'GDP 1조원 도시'로는 상해, 북경, 심수, 중경, 광주, 소주, 성도, 항주, 무한, 남경, 념파, 천진, 청도, 무석, 장사, 정주, 복주, 제남,

합비, 불산, 서안, 천주, 남통, 둥판, 상주, 연태, 당산 등 27개로 집계되었다.

특히 하북성 당산시(唐山市)는 2024년 GDP가 1조 3억 9,000만 원을 기록하며 하북성 최초이자 전국적으로 27번째 'GDP 1조원 도시'에 등극했다.

구체적인 지역 분포로 볼 때 장강삼각주지역의 'GDP 1조원 도시'가 상해, 소주, 남경 등 9개로 가장 많았다. 주강삼각주지역은 심수, 광주, 불산, 둥판 등 4개 도시가 포함됐다.

경제 총량으로 볼 때 2024년 'GDP

1조원 도시'중 상해가 1위를 차지, 지난해 GDP가 5조 3,926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북경은 4조 9,843억 1,0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심수, 중경, 광주는 GDP 3조원 이상 그룹에, 소주, 성도, 항주, 무한은 GDP 2조원 이상 그룹에 포함됐다.

'GDP 1조원 도시'는 어떤 경제 하이라이트가 있는가? 공업정보화부 정보통신경제전문가위원회 반하림 위원은 이런 도시들은 보편적으로 비교적 완벽한 산업체제와 방대한 산업

규모를 갖고 있으며 그 산업은 첨단 제조업, 현대서비스업, 과학기술혁신 등 여러 영역을 포괄하여 다원화된 경제구조를 형성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도시들은 혁신구동을 중시하고 비교적 강한 과학연구 실력과 혁신 능력을 갖고 있기에 산업의 승격과 전환을 끊임없이 추진할 수 있다. 한편 우월한 지리적 위치와 교통조건을 구비함으로써 자원 요소의 집결과 유통에 편리하여 경제의 패속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로 볼 때 2024년 'GDP 1조원 도시'중 21개 도시의 경제성장률이 전국 GDP 성장률(5%)보다 높거나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중 7개 도시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6%를 넘었다.

구체적으로 볼 때 천주의 지난해 GDP 성장률은 6.5%로 가장 높았고 남통이 6.2%로 그 뒤를 이었다. 북주, 합비, 상주, 연태 등 4개 도시는 6.1%, 소주는 6%였다.

'GDP 1조원 도시'의 경제성장률은 왜 전국 선두를 달릴 수 있는가? 반하림은 산업 우세가 중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도시들은 각자의 우세 산업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천주의 방직·신발·의류산업, 남통의 건축·선박산업, 북주의 전자정보산업, 합비의 과학기술혁신산업은 전국적으로도 발전이 앞서고 있다." 한편 이런 도시들은 과학기술혁신과 인재유치에 주력하며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 플랫폼을 건설하며 혁신 환경을 최적화하는 등 조치를 통해 도시의 혁신 능력과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제고시켰다. / 인민넷

북경 민영기업 수출입총액 15년 연속 성장세

지난해 전년 대비 11.9% 증가

지난해 북경지역 민영기업의 수출입총액이 4,354 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 15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북경세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그중 수출은 35.3%, 수입은 3.4% 확대되어 수출입 규모와 비중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북경지역의 1만 8,895개 수출입 기업중 민영기업수가 1만 5,256개로 최초로 1만 5,000개를 돌파했다. 지역 수출 증가에 대한 민영기업의 수출 규모 기여 역시 최초로 국유기업과 외자기업을 앞섰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입액이 1,941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2% 늘었다. 이중 하이테크 제품이 민영기업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 54.7%에 달했다.

북경지역 민영기업의 특색·저탄소산업 수출이 120.5% 증가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풍력발전기 세트, 리튬이온배터리, 태양광 제품의 수출액은 각각 29억 9,000만 원, 11억 5,000만 원, 4억 9,000만 원으로 98%, 206%, 128.5%씩 증가했다.

한편 북경지역 민영기업의 자체 브랜드 상품 수출액도 51.7%가 확대된 570억 8,000만 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 신화넷

상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박차

고가치 특허 전년 대비 15.3% 증가

상해가 지적재산권(IP)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2월 25일 상해시지적재산권국에 따르면 상해에는 7만 5,000개 이상의 외자기업이 입주해있다. 이에 따라 상해는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글로벌 혁신가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상해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적극 시행해왔다. 더불어 1,200건이 넘는 외자기업의 상표권 침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행동을 전개했다.

상해시지적재산권국 예문표 국장은 전자상거래 의약품 조달 등 주요

부문에 대해 산업 자률 규제를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위법 사안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개선하며 특허 사전 심사 및 우선 검토를 지원하는 지침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상해의 소송 메커니즘을 강조하며 상해시지적재산권국은 외자기업의 우려에 신속히 대응하고 문제 해결을 도왔다고 부연했다.

한편 상해는 글로벌 지적재산권 보호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상해시 인구 1만명당 고가치 발명 특허 보유량은 57.9건으로 전년 대비 15.3%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제 특허 신청 건수는 전년보다 10.3% 확대된 6,822건으로 집계됐다. 지적재산권 발전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다. / 신화사

'제 5 회 중국국제소비재박람회' 오는 4 월 해구서

'제 5 회 중국국제소비재박람회(CICPE)'가 오는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해남성 해구시에서 열린다.

상무부와 해남성정부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CICPE는 메인 행사장인 해남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해구국제면세점(城), 삼아(三亚) 국제면세점에는 면세소비재 전시기획이 마련되고 삼아에서는 요트전시회가 열린다. 주빈국은 영국이며 주빈성(省)은 북경시가 맡는다.

올해 행사는 참가 국가 및 지역이 한층 다양해졌다. 슬로벤스코 공식 전시 단체, 브라질 공식 전시 단체, 싱가포르 기업 전시 단체 등 새 참가 단체들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외 미국 에스티로더, 영국 레킷켄커, 독일 폭스바겐, 타이 치아타이

그룹 및 TCP 그룹 등 선도 기업이 단독 참가를 확정했다. 이 밖에 프랑스 고급 향수 브랜드 줄리엣 헤즈 어 건, 영국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 아르겐툼 등이 참가한다.

이 밖에 이번 CICPE는 인공지능(AI), 저고도 비행, 대건강(大健康), 스마트 주행 등 새로운 소비 이슈에 더 집중할 계획이다. 화위, 과대신비(科大讯飞), 소음(韶音) 과학기술, 우수(宇树) 과학기술, 미국 테슬라 등이 참가한다.

또한 신제품 발표, 패션쇼, 주얼리쇼, 메이크업쇼 등 특색 명품 행사와 패션·디지털·건강 소비, 저고도 경제, 신에너지 등 소비 이슈 분야의 시리즈 부대 행사도 이어진다.

경제 총량으로 볼 때 2024년 'GDP



2024년 4월 18일, '제 4 회 중국국제소비재박람회(CICPE)' 메인 행사장을 둘러 보는 방문객. / 신화넷

지난해 운남 커피 수출량 3.25 만톤



전년 대비 358% 급증

지난해 운남성의 커피 수출량이 3만 2,500 톤으로 전년 대비 358% 급증했다.

2월 25일 관명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커피는 화란, 독일, 미국, 벨라루스 등 29개 국가(지역)로 수출됐다.

운남성의 커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관명세관은 검사, 샘플링 및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커피 수출업체를 위한 서비스를 개선해왔다.

운남성농업농촌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운남성의 전체 커피 재배면적은 약 8만 헥타르, 커피 생두 생산량은 14만 6,000 톤에 달했다.

운남성의 커피 재배면적, 생산량, 농업생산액은 모두 전국의 98%를 차지한다. 130여년의 커피 재배 역사를 자랑하는 운남성이 우리 나라 커피산업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사진은 1월 8일 운남성 보이시의 천옥(天玉) 커피농장에서 운전자(가운데)와 직원이 올해 커피 풍작을 경축하는 장면.

/ 신화넷

성도, 다국적기업 '성도단지행' 행사 개최

최근 사천성 성도시는 다국적기업 '성도단지행'(成都园区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방문간호사회, 지스페이스, 더씨컴퍼니 등 10여개 한국 기관 및 기업 대표들이 참여, 현지 실사를 통해 성도의 비즈니스 환경 및 투자 분위기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2월 21일, 한국 기업 대표들은 성도에 위치한 중한혁신창업단지를 방문, 성도·한국글로벌센터를 둘러보고 중한혁신창업단지의 건설 성과 및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중한혁신창업단지는 2016년에 설립된 이래 약 100개의 한국 기업을 유치했으며 중한 브랜드 마켓, 골든팬더 글로벌 혁신창업대회 아태지역 대회(서울) 등 70여개의 교류행사를 개최해 중한 혁신 자원 매칭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중한혁신창업단지 관련 책임자는 성도·한국글로벌센터는 성도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첫 정거장'으로 한국 기업에 조세, 자원 매칭, 금융·임대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국 기업



성도 중한혁신창업단지를 방문한 한국 기업 대표단

대표단은 중한혁신창업단지 대표 기업인 성도 중형대룡(纵横大鹏) 드론테크회사를 방문해 산업 드론 분야의 혁신 성과를 참관했다.

또한 협력 수요에 대해 중한혁신창업단지 책임자와 심도있는 교류를 진행했다. 많은 한국 기업 대표들은 성도의 디지털 의료 분야 혁신 성과가 한국 의료 자원과 상호 보완성이 강하다며 단지 플랫폼을 통해 기술 협력 및 시장 개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한혁신창업단지의 관련 책임자는 앞으로 중한혁신창업단지를 기반으로 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한국 기업의 성도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신화넷



사천성 성도시에 위치한 중한혁신창업단지